

## 근관치료 치아의 예후 및 주의사항



**이 승 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교실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석.박사
- 미국미네소타대학교 근관치료수련 및 석사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학 교수
- (현) 대한근관치료학회 회장
- (현) Diplomate, American Board of Endodontics

근관치료의 예후를 판단하는 일은 치근단부위의 치유에만 국한시키는 것보다 치아 전체의 활용도나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근관치료를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치근단치유를 얻었다해도 치주 상태가 불량하거나 무리한 수복에 의해 과도한 교합 압을 받게 되면 치아의 예후는 당연히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근관치료의 예후는 첫째, 치근단조직의 상태와 근관의 상태, 둘째로 치아주위조직의 상태, 셋째로 수복학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근관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수술의 가능성 여부이다. 근관치료는 치근단수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치근단수술이라는 방패가 불확실하다면 근관치료의 예후도 역시 불확실하게 된다. 보철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는 근관치료된 치아의 포스트 도중이나 후에 발생하는

치근의 천공이나 수직치근파절이다. 다른 모든 치료상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치근천공에 있어서 최상의 치료법은 곧예방과 신속한 처치이다. 치수강개방시 치근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개개치아의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하여 치근의방향이나 치수강의 크기 등을 미리 파악해야만 하고 방향이 의심될 때에는 수시로 방사선사진을 찍어서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치근은대개 협설 중앙부에 함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천공이 발생되면 지체하지 말고 가급적 즉시 처치를 해 주어야 한다. 치근의 수직파절은 과도한 교합압이나 근관충전시 불필요하게 무리한 힘을 가했을 때 발생된다. 본 강좌에서는 근관치료의 예후 판단에 관여하는 인자와 치근천공 및 파절에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